

캘리그라피 : 손보영 카타리나(덕계성당) / 작품 속 한자 隨(따를 수)

연중 제28주일

제1독서 지혜서 7,7~11

화답송 시편 90(89),12~13,14~15,16~17 (© 14 참조)

◎ 주님,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가 기뻐하리이다.



1.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리 이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2.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저희가 비참했던 그 날수만큼, 불행했던 그 헛수만큼 저희를 기쁘게 하소서. ◎

3. 당신 하신 일을 당신 종들에게, 당신 영광을 그 자손들 위에 드러내소서.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실어 주소서. ◎

제2독서 히브리서 4,12~13

복음환호송 마태 5,3

◎ 알렐루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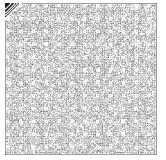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복음 마르코 10,17~30

영성체송 시편 34(33),11

부자들도 궁색해져 굶주리게 되지만, 주님을 찾는 이에게는 좋은 것뿐이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오늘 복음에 나온 부자 청년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스승이신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방법을 물어볼 정도로 여유가 있습니다. 사실 그 방법은 온갖 걱정이 끊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가질 수 없는 궁금증입니다. 앞으로 얻을 영원한 생명보다 당장 먹을 걱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부자 청년에게 부족한 한 가지를 거론하십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마르 10.21)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는 일이 쉬운 사람은 많이 가진 이가 아니라 오히려 별로 가진 게 없는 사람입니다. 가진 게 없어 나누는 데 그리 아까울 것도 없고, 나가서는 상대방이 가난하다는 생각 없이 그저 더불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물만이 아니라 사람의 관계 모든 측면에서 같은 입장과 감정을 가질 수 있다면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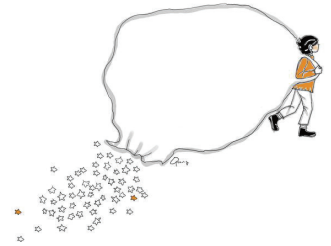
것이 곧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방법입니다.

혹시 나보다 경제수준이 낮은 사람을 보고서, 또는 다른 조건을 들이대며 은연중에 멸시하려는 경향은 없는지요? 세상엔 많은 사람이 있어서 골고루 다 맞춰가며 살아가기는 매우 어렵지만 그렇다고 나와 맞지 않는 다른 이들에게 수준이 떨어진다고 같이 있기 불편해하지는 않는지요?

부자 청년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방법을 예수님께 듣고서 슬퍼하였습니다. 도무지 그것을 실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남들에게 큰소리 빵빵 치면서 그것이 자신을 외롭고 슬프게 만든다는 사실은 까마득하게 잊고 삽니다. 남들에게 내뿜는 큰소리는 자신감이 아니라 외딴 섬을 만드는 독단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 큰소리는 그것을 듣는 이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독백과도 같은 말이기 때

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마르 10.30)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마르 10.27)는 믿음을 바탕으로 감성적 사랑에서 복음적 사랑으로 옮겨가려고 할 때 이루어집니다. 자신이 원하는 사랑에서 그분이 원하는 사랑으로, 독단에서 소통으로 옮겨가는 것이 곧 복음적 사랑입니다. 옷 입듯 그분의 사랑을 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힘써야겠습니다.



정상천
스테파노 신부
김해성당 주임



천둥 번개 요란한 초가를 저녁,
담담한 표정으로 바느질하시며
“나락이 익겠구나.” 하셨지요.

어려운 책 한 권 읽지 않으셨어도
자연의 이치와 사람의 도리에 밝으셨던
어머니의 지혜가 그림습니다.

세상일에 똑똑하고 싶은 욕심
슬그머니 내려놓습니다.



글. 장정에 마리아고레피 시인(만덕성당)
그림. 최창임 프란치스카 화가(성가정성당)

cpbc 부산가톨릭평화방송

부산 FM 울산 FM 녹산 FM
101.1 MHz 94.3 MHz 101.5 MHz

오늘의 강론 월~토 06: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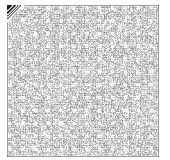
10.15(월)~16(화)
정상천 신부(김해성당 주임)
10.17(수)~20(토)
이철희 신부(사하성당 보좌)

사랑이 있는 세상

월~목 12:15~14:00
진행 : 우지민 아나운서
10.17(수) 오늘의 가톨릭 뉴스
- 가톨릭지체장애인복지회 주최 '문불 경기'
출연 : 임영천 헬레나 리포터
10.17(수) 본당 리포터
출연 : 원구룡 베드로 형제(태종대성당)

신부들의 수다

10.20(토) 13:00~14:00
진행 : 홍영택, 김병희, 이추성 신부
[그 신부들의 선곡표]
출연 : 민병국 신부(서면성당)



고1인 제 딸이 며칠 전 엽서를 받았습니다. 제 아이가 지난해 10월 중순 부산진구 시민공원에 자율동아리 활동을 하러 갔다가 자신에게 써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 날은 아이 생일 전날이었습니다.

엽서 앞면엔 시민공원 전경 사진과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부산시민공원', '느린 우체통, 1년 뒤 미래로 보내는 편지' 등의 문구가 실려 있었습니다.

'17살 여고생이 1년 전 16살의 자기 편지를 받으면 무슨 느낌이 들까?' 궁금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얼굴 표정에 드러났는지 제가 전해준 엽서를 받아든 딸 아이는 "에이, 1년이 다 안 됐는데 왔네"라고 심드렁해 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곤 엽서를 흘깃 보더니 옆으로 툭 던졌습니다.

이 대목에 궁금한 걸 물으면 '꼰대'로 찍힐 게 뻔해 목구멍까지 올라온 '질문의 욕구'를 꿀꺽 삼켰습니다. '살아갈 날이 가을 새털구름

보다 더 많은 고딩이 무슨 큰 감흥이 있으랴'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1년 전, 10년 전 내가 지금의 내게 편지를 보냈다면 무슨 내용이었을까?', '지금의 내가 1년 뒤, 10년 뒤 내게 편지를 쓴다면 무얼 적을까?' 등의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1년 전', '1년 후'는 시간입니다. 중년 고개를 넘고 있는 저와 '고딩'인 딸 아이에게 '시간'이란 단어가 갖는 혹은 주는 의미, 무게가 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시간은 신비인지도 모릅니다.

성경 창세기는 "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다... 이렇게 첫날이 밤, 낮 하루가 지났다"(1.1~5)는 문장들로 시작됩니다. 시간이 공간보다 뒤에 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도 가이아(땅), 우라노스(하늘)에 이어 크로노스(시간)가 등장합니다. 역시 시간이 땅, 하늘이란 공간보다 뒤입니다. 저는 이걸 사람의 인지, 인식에 공간 관

념이 먼저 생기고 시간은 나중에 형성되는 걸 보여준다고 해석하곤 합니다. 시간은 사람이 삶을 살아 봐야 알 수 있는 거라는 얘기도요. 그런데 세월이 흐른다고 '시간의 신비'가 다 드러나는 건 아닙니다.

성경엔 또 이런 말씀이 나오니다. "당신 앞에서는 천 년도 하루와 같아 지나간 어제 같고 깨어 있는 밤과 같사오니"(시편 90.4),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습니다."(2베도 3.8)

지나친 욕심이겠지만 제 딸 아이가 '느린 엽서'를 통해 찰나라도 이런 '시간의 신비'를 느꼈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물론 저 역시 '다 지나고 나서야 뭔가를 아는 어리석은 사람'이기에 '시간의 주인'께 기도합니다.

가을은 그런 기도를 하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 박주영 첼레스티노

남천성당, 언론인 park21@chosun.com

한처음
교구가
시작될 때

교구청과 가톨릭센터 건립

제2대 교구장 이갑수 주교는 교구의 성장과 현안을 과제로 삼았다. 먼저 관심을 가진 것은 교구청 신축이었다. 교세가 확대되고 교구 사목 업무도 많아지고 적체되자, 세분화된 행정으로 사목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제기되었다. 교구청은 교구설립과 동시에 중앙성당에서 시작되었지만, 본당 안에 속한 부지가 협소하여 1964년 메리놀회에서 무상으로 증여한 대청동 땅에 새 교구청을 건립하였다. 그런데 교구가 급속하게 성장하며 교구청 건립 10년 만에 이조차도 사목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는 데는 비좁았다. 교구에서 여러 번 논의를 거쳐 1975년 3월 16일 교구청사 기공식을 가졌고, 7월 31일에 신축 교구청 낙성식을 가졌다.

이와 함께 교구는 복음 전파와 지역 사회의 문화 사업, 그리고 사목 행정 사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센터 건립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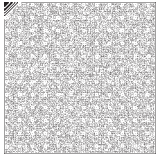
필요하였다. 몇 년을 준비하여 1980년 '가톨릭센터' 건립 사업이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는데 우선 교구장 주교는 '1980년 사목교서'에서 가톨릭센터의 연내 착공을 발표하고, 교구청 실무자들에게 준비작업을 지시하여 1980년 12월 9일 가톨릭센터 기공식을 교구청 앞에서 거행하였다. 1982년 4월 17일부터 19일까지는 모든 본당이 참가하여 "가톨릭센터 개관 기념 바자회"를 개최했다. 이 바자회는 시민들에게 문화 센터 개관을 알리는 동시에, 교구설립 25주년을 경축하는 의미도 포함한 것이었다. 기공식 이후 16개월만인 1982년 4월 30일에 가톨릭센터 축성식을 거행하였다.

10년 동안 신자들의 염원이었던 가톨릭센터는 교회 본연의 사명인 복음선포와 지역 사회의 문화 공간을 제공하였고 2006년 새로운 모습으로 재개관하여, 공연 및 다양한 기획행사, 전시, 문화강좌를 개최하여 교회의 문화 활동에 큰 힘이 되고 있다.

■ 한건 신부(순교성지사목) jubo@catb.kr



세상 모두가 포기했지만 난 희망을 놓지 않는다



딱 10년 전인 2008년 작은 도매업을 하다 부도를 맞았고 그때부터 저는 빚 독촉과 생활고와의 전쟁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그 고난의 시간에서 벗어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몸부림치던 어느 날 숨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하루라도 일을 멈추면 사는 것이 막막했기에 버텨야 했지만 저의 병명은 심장병, 신장병, 고혈압 등등 각종 질병과 함께 육체노동 불가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숨기려 해도 그런 저를 받아주는 곳도,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없었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해 온몸에 암이 퍼진 아내의 곁을 지키며 어린 손자를 키우는 것이 전부입니다.

제 어린 손자 노엘은 철없던 18살 아들이 데리고 들어 온 만삭의 며느리에게서 얻은 뜻하지 않은 아이입니다. 노엘을 낳고 아들

은 곧 군대를 가야만 했고 며느리는 덩그러니 손자만 남겨 둔 채 온다 간다 말없이 사라지고 말았지요. 그렇게 할아버지 손에 자라는 불쌍한 손자 노엘은 자폐아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찾길로 뛰어든 거나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기도 해 뽀박질을 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아파 아이를 붙잡을 수가 없어 손자의 허리와 제 허리에 끈을 묶어 다녀야 합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 말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저를 아동학대 가해자로 만들었고 노엘을 시설에 보내야 한다고 하여 시설에까지 가기도 했었지만, 그 아이의 눈망울을 보며 저는 어떻게든 노엘의 세상을 지켜주리라 다짐하며 다시 안고 돌아섰습니다.

철없던 십 대의 아들은 이제 이십대가 되어 낮에는 공장에서 밤에는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며 아픈 부모와 자식을 돌보려 몸부림을 칩

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저희를 더 가혹하게 내몰아 지금 살고 있는 월셋집이 재개발로 철거된다고 밀린 월세를 내고 빨리 떠나라며 등을 떠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돈도 돈이지만, 심장병 환자, 암 환자, 자폐아 가족에게 월셋집 하나 구하기란 산 넘어 산입니다.

그래도 저는 다짐해 봅니다. 남편, 아버지, 할아버지로서 부족한 사람이지만 노엘이 세상과 소통하는 날까지 희망으로 살아 보겠노라고, 노엘의 산타가 되어 주겠노라고, 그리하여 마음 편히 주님을 만나러 가겠노라고.

■ 사회사목국(051-516-0815)

도움 주실 분

신협 131-016-582122
부산은행 101-2017-0218-01

예금주 : 천주교부산교구



자녀에게 신앙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녀의 신앙 교육을 막막해하시는 분을 종종 뵙습니다. 우리는 교육을 아웃소싱하는 데 길들여져있습니다. 영어는 영어학원에서 태권도는 태권도장에서 피아노는 피아노학원에서. 그런 풍토에서 신앙은 성당에서 맡아서 해야지 하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 교육은 결코 아웃소싱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신앙은 자기 신앙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유컨대 부모가 아닌 사람은 자녀에게 유전자를 물려줄 수 없다는 생각해보십시오.

부모는 자녀에게 “최초의 신앙선포자”(『가톨릭교회교리서』 2225항)입니다. 신앙 교육은 부모의 특권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자녀에게 선물해주는 것만큼 부모로서 큰 보람은 없을 것입니다. 동시에 신앙 교육은 부모의 의무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소명을 발견

하도록 가르칠 사명을 띠고 있다.”(『가톨릭교회교리서』 2226항)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우선 신앙을 신비 교육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 교육은 단순히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 방식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부모님은 종종 ‘나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칠 수 있나요?’ 하십니다. 지식 전달의 교육에서는 잘 아는 사람만이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비 교육에서는 무지가 가장 훌륭한 스승입니다. ‘나도 잘 모르는 데 같이 찾아볼래?’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신비입니다. 신앙 교육에서는 정답을 알고 가르치려는 태도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 교육은 발에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 인생 안에 하느님께서 숨겨두신 은총을 자녀와 함께 찾아보는 기쁨을 누리보시기를 기원합니다.

■ 임성근 신부(우동성당 부주임) pantaleon@naver.com

믿음 증진을 위한 피정



또한 금곡성당(주임 : 이강수 신부, 회장 : 허재권 바오로)은 지난 10월 3일(수) 성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에서 레지오 단원들을 대상으로 믿음 증진을 위한 피정을 실시했다.

괴정성당(주임 : 박근범 신부, 회장 : 김희수 카타리나)은 지난 9월 30일(일) 성분도 은혜의 집에서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교 교수 염철호 신부의 특강 등으로 피정을 실시했다.



금정성당, 파티마의 성모 Pr. 2,000차 주회



10월 3일(수)
주임 : 주영돈 신부, 단장 : 황재정 엘리사벳

해운대성당, 신비로운 장미 Pr. 2,000차 주회



10월 3일(수)
주임 : 강중석 신부, 단장 : 이광영 로베르토

축하합니다.



10월 3일(수) 수리치골성지, 황새바위성지 / 주임 : 김두유 신부, 회장 : 고정환 안드레아

성가정성당 설립 20주년



10월 7일(일) 작은 음악회
주임 : 김석중 신부, 회장 : 신춘길 요셉

남밀양성당 설립 15주년



9월 30일(일) 황새바위성지 / 주임 : 최승일 신부, 회장 : 정만철 아우구스티노

사직대건성당, 불우이웃돕기 반찬 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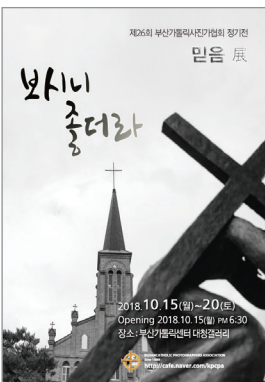
10월 4일(목)
주임 : 김정욱 신부,
회장 : 박찬수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가톨릭마라톤회, 제12회 시복 시성을 위한 성지 이어달리기



9월 30일(일)
김범우순교자성지~오륜대순교자성지(60km)
지도 : 윤희동 신부, 회장 : 안병윤 제르바시오



제26회 부산가톨릭사진가협회 사진전

부산가톨릭사진가협회(지도 : 김현일 신부, 회장 : 최경락 빅토리아노)는 오는 10월 15일(월)~20일(토) 가톨릭센터 내 대청갤러리에서 제 26회 정기 사진전을 개최한다. '믿음'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32명의 회원 및 특별 회원(현직 사진작가, 사제)들이 참가하여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개전식 : 10월 15일(월) 18:30

선교용 · 선물용

2019년

교구 탁상용 달력 보급

* 주제 전례시기에 맞춘 제대꽃

- 보급방법 12월 초, 본당에서 수령
- 신청방법 교구 홈페이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 카카오톡에서 <천주교부산교구 탁상달력> 친구 추가 후 신청
 - 내용 : 성명, 세례명, 본당, 전화번호, 신청부수



- 판매가 3,000원 / 1부
- 입금계좌 (입금자명 : 성함+전화번호 끝 4자리)
농협 301-2018-0726-51 재단법인 천주교부산교구
- 문의 051-629-8752 (전산홍보국)

교 구

예신 일 모임

· 10.14(일) 13:30 · 신학대학
문의 : 629-8760(성소국) ※예신 수첩 지참

성직자 성화를 위한 미사

· 10.15(월) 10:00(목죽기도), 10:30(미사)
· 교구청 2층 성당 / 문의 : 629-8760~2(성소국)

신학생 부모 피정

· 10.21(일) 10:00 · 교구청 2층 성당 / 회비 : 1만원
입금 : 부산 041-01-027178-1 천주교부산교구
준비물 : 미사도구, 목주, 필기도구
신청 : 10.15(월)까지 팩스(629-8764)
문의 : 629-8760(성소국)

대리구장과 함께 걷는 양업길 순례

· 10.27(토) 10:00~17:00
- 야외미사 : 안양성당 10:00
· 양업길(안양성당~김영제묘)
대상 : 울산대리구내 본당 신자들
준비물 : 미사 준비, 목주, 간편한 복장, 운동화,
개인간식, 개인 점심 도시락(만드시 지참)
문의 및 신청 : 본당 사무실

선종사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017. 10. 14. 하(안토니오) 몬시뇰
2017. 10. 17. 백응복(스테파노) 신부님
1978. 10. 19. 김경우(알렉시오) 신부님

본 당

장산성당 30주년 음악회

· 10.20(토) 19:30 · 장산성당 성전
문의 : 010-4840-2749

기관·제 단체·위원회

푸르실로 참가 신청 접수 및 마감

제412차(자매) : 10.25(목)~28(일) / 마감 : 10.19(금)
제413차(형제) : 11.1(목)~4(일) / 마감 : 10.26(금)
제414차(자매) : 11.22(목)~25(일) / 마감 : 11.16(금)
문의 : (055)388-5734, 388-5733(팩스), 본당 간사

Arca 청년성서모임 폐제 미사

울산 : 10.15(월) 20:00 울산병영순교성지성당
부산 : 10.17(수) 20:00 초량성서교육원
주례 : 권순도 신부(부산), 이주홍 신부(울산)
문의 : 469-0761, cafe.daum.net/psbiblefamily

오륜대순교자성지 후원회 미사 및 특강

· 10.18(목) 11:00 · 오륜대순교자성지성당
주제 : 소 브리기에르 주교
문의 : 515-0030

부산교회사연구소 순교자 현양 미사

· 10.20(토) 11:00 · 가톨릭센터 경당
주례 : 순교자현양위원회사제단 / 문의 : 462-1784

교정사목회 후원회 미사

울산 : 10.27(토) 10:00 옥동성당
문의 : 441-7729

2019학년도 성모학원 산하 고등학교 신규교사 모집

- ▶ 선발과목 및 인원 : 수학 2명, 지리 1명, 체육 2명, 전자 4명
- ▶ 응시원서 접수 : 2018.10.22(월)~26(금) ※ 인터넷 접수만 가능
- ▶ 세부사항 : 성모학원 산하 고등학교 홈페이지 참조
대양전자통신고 <http://daeyang.hs.kr> 데레사여고 <http://trs.hs.kr>
성모여고 <http://sung-mo.hs.kr> 자산고 <http://jisan.hs.kr>
▶ 문의사항 : 051)510-0712 (성모학원 법인사무처)

성령봉사회 (055)382-9465 영성의 집

-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과 함께하는 54일(9일)기도 (버스운행합니다)
- 10.17(수) 11:00~16:00
강사 : 김명심 수녀(꽃동네자매회)
회비 : 2만원(기도서, 봉헌초 포함)
- 금요철야기도회
· 10.19(금) 23:00~20(토) 04:00
강사 : 유병수 형제
- 449차 교구 성령묵상회(일반)
· 10.26(금) 19:30~28(일) 17:30
회비 : 10만원(교재 5천원 별도)
18:30 동래 전철역 3번 출구

양산 하늘공원 직원 채용 공고

사무직, 모원관리직 / 문의 : (055)374-8733
접수 : 10.21(일)까지 우편, 메일
제출서류 : 교적, 이력서, 자기소개서

부산 체나콜로(다락방) 기도회 월미사

· 10.16(화) 14:00 · 가야성당
성모님께 봉헌식과 성체강복 및 안수
지도 : 윤명기 신부 / 문의 : 010-8879-2376

라우다테윈드양상블 제9회 정기연주회

· 10.15(월) 19:30 · 양정성당 ※ 초대
지도 : 신요안 신부 / 지휘 : 이수영
문의 : 010-5917-8071(총무)

Senda 찬양스토리 <주님께 가는 길>

· 10.20(토) 15:00 · 서면성당 senda / 참가비 : 1만원
출연 : 계만석, 남석균, 송동진, 게스트 마니파캣
주제 : 파견 / 문의 : 010-9861-9064

가톨릭센터 사무실 임대

용도 : 사무실 6층 (51.20평 / 15.88평)

가톨릭센터 사진교실 수강생 모집

강사 : 최경현 (사진작가)
과정 : 15회 과정 / 수강료 : 20만원
초급반 개강 : 10.16(화) 19:00 (매주 화)
문의 : 462-1870(가톨릭센터 행정실)

제24기 인문고전대학 개강

개강 : 10.2(화) 19:00 가톨릭센터
과정 : 매주 화, 수, 목 강의(10주간)
화 : 불이 사상으로 세상 살기(권서용)
수 : 유토피아 이야기(이동문)
목 : 호메로스과 셰익스피어 속의 '메멘토 모리'
임기(김해룡) / 문의 : 510-0554(인문학연구소)

혼인미사 예식 및 예약 안내

금, 토, 일, 공휴일 : 11시, 13시, 15시, 17시
문의 및 예약 : 051.441.3500 (수~일)
* 2018년 성전봉헌기념 특가 예약 중 *



부산가정성당
Matrimonium · AMOR · Familia

목주반지 전문공방
다양한 예물, 카플링, 패션제품
서울공예사
범일동 역 12번 출구 중앙 귀금속 115호
(주.야) 631-5006, 631-5007
형인환(가롤로)·김경자(모니카)

분도목공소

제대, 강론대, 장패를 등
각종 성구 제작
www.bundowood.kr
공 장 : 262-1959
대표번호 : 1544-2391

(주)발해투어

1. 나가사키 성지순례 (카멜 3박 4일)
479,000원, 20명 이상 출발
2. 대마도 매일 출발 (119,000원~)
3. 일본 온천(히라도) 카멜 3일
199,000원~
항 프란치스코 255-5887

삼일누수탐지공사

수도배관, 보일러배관 등 각종 누수
인터넷 검색어 : 삼일누수
202-3011
이 국 영 (베드로)

포장이사 전문업체

성신익스프레스
(영구크린 부산지점)
이사와 청소를 한번에 해결해드립니다
인터넷 검색어 : 삼일누수
242-4222, 1522-4324
www.ss0924.com

각종차량 자동차의 모든 것
매매, 위탁, 수출, 등록, 알선, 폐차, 말소
OS자동차매매상사
상점전화: 010-3599-6420
자동차매매 부산 권허 제20호, 현 중 삼(요셉)

(주)하나여행클럽

해외성지순례 전문
국내성지순례 상시출발!!
김 승 범 (안드레아)
010-6321-3999

법무법인 올강

민사, 형사, 가사, 회생, 파산,
조세, 행정 등 각종법률상담
대표번호사. 임 경 표(세례자요한)
717-2570, 010-7455-1031

거 제 주 단

주단, 포목, 혼수, 예단 도소매
박대수(야고보), 최복순(데레사)
632-0696
010-9331-6633
진시장 1층 주단부 318호 1층 8호문 안쪽 화장실 옆

사회복지법인 성요셉의 집

입 소 상 담
(055) 365-1910
장기요양등급 1~5등급
(1인실~4인실 선택가능)
www.st-joseph.co.kr

부산 미바회 후원회 미사

· 10.19(금) 10:00 / 세계오지선교회차량지원
· 문현성당 / 문의 : 010-9312-4228(회장)

전례꽃꽂이연구회 미리보는 전례꽃 및 월미사

· 10.22(월) 10:30 · 교구청 2층 성당
문의 : 010-4554-1173, 010-2556-6380

평신도선교사회 예비신자 우편 통신교리

대상 : 본당 교리반 참석이 힘든 예비신자
수강신청 : 본당 사무실, 가톨릭센터 홈페이지
(www.bccenter.or.kr), 신학원 카페(cafe.daum.net/catholic-sinhak) / 문의 : 462-0334
(월~금, 14:00~17:00), logos1981@daum.net

가톨릭심리상담소 행복나눔의전화 : 463-7866

상담 : 월~금 10:00~16:30(중구 대청동)
내방상담 : 신자, 비신자 및 타종교인(전화 예약)
청소년 진로 및 심리상담 : 토요일 10:00~16:30
상담사 : 조옥진 신부(상담심리학 박사) 및 전문상담사

교육·모집·기타

예수고난회 일일피정

· 10.15(월) 14:00~17:00 · 중앙성당 소성당
주제 : 성모님과 우리의 신앙생활 / 강의 : 민만홍
수사 / 문의 : (02)924-8627, 010-9309-1388

티없으신마리아성심수녀회 후원회 미사

· 10.18(목) 14:00 · 푸른군대 경당
문의 : 634-4820, 636-4819

한국외방선교수녀회 후원미사

· 10.19(금) 10:00 · 사직대건성당
문의 : 582-1774, 010-9081-1743

예수회 무료 월례특강 및 미사

· 10.19(금) 14:00~17:00 · 성분도 은혜의 집
주제 : 우리의 상처와 예수성심
강사 : 손우배 신부 / 문의 : 010-9344-3843

청년 MSC 마음피정 (자연스러운 하느님과 나)

· 10.19(금) 19:00~21(일) 13:00 / 피정비 : 6만원
대상 : 20세~45세 이하 남녀 미혼 청년
문의 : 010-4270-3103(예수성심전교수녀회)

밀양가르멜수녀원 후원회 미사

· 10.22(월) 11:00 · 남천성당 소성당
주제 : 이홍기 몬시뇰 / 문의 : (055)353-6597

오륜대한국순교자박물관 전시 <무진박해 부 산순교자 150주년 기념-꽃피어라 순교의 얼>

· 9.20(목)~2019.4.30(화)

체험 <토요가톨릭문화체험교실>

· 매주 토요일(예약) / 대상 : 10인 이상 예약시 운영
내용 : 십자가, 성모상 만들기(5천원)
문의 : 583-2923, Fax 583-2924(학예실)

분도명상의집 렉시오디비나(성독) 월모임

· 10.27(토) 10:00~17:00 · 분도 명상의 집
참가비 : 1만 5천원 / 준비물 : 성경, 미사 준비
문의 : 010-3271-0766(권 벨라뎃다)

새예루살렘 향심기도 하루피정

· 10.28(일) 10:30~16:00 · 새 예루살렘
강사 : 왕영수 신부 / 참여비 : 1만원(중식 포함)
신청 : 10.24(수)까지
문의 : (052)239-1249, 010-5488-1239

바오로딸 행복특강

<영화가 알려주는 행복한 소통의 비밀>
· 11.1(목) 19:00~21:00 · 대청동 바오로딸 서원
강사 : 이충무 교수(사방이 온통 행복인데 저자)
회비 : 1만원(책 증정), 선착순 50명 / 문의 : 465-2173

쿠바 선교를 위한 자선음악회

· 10.20(토) 15:00 / 입장권 : 1만원
·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대성당
무지카사크라스을 합창단(합창, 독창, 오르간)
문의 : (054)970-2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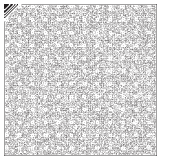
한티순교성지 피정

· 10.22(토) 10:00~16:00
주제 : 출을 통한 몸기도(힐링피정)
강사 : 문보나 수녀(그리스도교육수녀회)
문의 : (054)975-5151

배상섭 신부와 함께 하는 성지순례

· 11.22(목)~12.5(수) · 서유럽, 스페인
(로마, 아씨시, 바르셀로나, 파티마)
부산 출발 / 문의 : 010-3837-6434

수도회 성소 모임 및 피정	일시	장소	문의
천주성요한의료봉사수도회	10.20(토) 14:00	서울 개화동 수도원	010-3800-1579
티없으신마리아성심수녀회	10.21(일) 13:30	본원	010-2835-4858
사랑의성모수녀회	수시상담	부산본원 및 원하는 장소	010-9585-7074
작은예수수녀회	전화상담	전화상담	010-8939-7970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입니다.

꽃동네 개인 피정초대

· 10.26(금)~28(일) · 꽃동네사랑의영성원 피정의집
대상 :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
피정비 : 12만원(개인독방, 자유피정 가능)
수도자와 함께 하는 아침미사·낙원미사 / 꽃동네 순례, 꽃동네 철야기도회(원하는 분 참석가능)
문의 : (043)879-8500, 010-8880-8286

성도미니코선교수녀회 성경통독피정

· 11.3(토)~11(일) / 회비 : 48만원
문의 : 010-3340-0201, 010-4993-4394

가정성화를 위한 꽃동네 성령피정

· 11.17(토) 11:00~18(일) 16:00
· 음성꽃동네사랑의영성원 / 회비 : 5만원
대상 : 가정성화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분들
문의 : 010-5490-5345(어린이 동반금지)

연화리피정의집 <소울 스테이 - 기도와 쉼>

아름다운 자연, 하느님의 사랑으로 초대합니다.
1. 말씀과 함께하는(LD) 피정
2. 음악힐링 Logos말씀명상 피정
· 연화리 피정의집 / 문의 : (054)973-4835
(개인, 단체 수시 전화문의 가능)

가톨릭상지대학교 신입생 수시2차 모집

원서접수 : 11.6(화)~20(화)
문의 : (054)851-3021

겨울방학 필리핀 영어캠프 모집

· 2019.1.5(토)~2.17(일) (6주)
· 필리핀 광산한 마리아의 아들 수도원
대상 : 초4~중2 / 비용 : 420만원
문의 : (031)207-4982, 010-4442-4982,
영어캠프블로그 blog.naver.com/cfcicengcamp
주최 : 마리아의 아들 수도회



가톨릭부산 주보 표지 작품 모집

* 부문 사진, 미술(일러스트 포함), 캘리그래피

■ 주제

- 2019년 전례력 각 주일 복음 주제를 표현한 작품
- 성월과 축일
- 성경 구절을 떠올릴 수 있는 자연과 계절의 풍경
- 본당, 가정 등 공동체의 아름답고 감동적인 모습
- 신자들의 전례, 성사 생활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

■ 모집기간 10월 14일(일)~12월 16일(일)

- 시상 부문별 1등 - 30만원, 입선작 다수 - 주보 게재 시 원고료
- 작품제출 교구 홈페이지 주보표지작품 게시판, 이메일(jubo@catb.kr)
- 출품수 제한 없음 (출품 시 출품부문, 성명, 세례명, 본당, 연락처, 작품제목 함께 제출)
- 자격 교구 신자 누구나
- 문의 051-629-8752 (전산홍보국)

'옥에 티'를 찾습니다! 주보에서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카톡 플러스친구 '가톨릭부산', 이메일로 알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국가공인 1급 조율사 직영점 -
야마하중고피아노직수입
삼익영창그랜드피아노판매
중고 피아노 사고 팝니다
조태상(클라로) · 이정미(노엘라)
851-4545, 010-3597-4641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양운재가노인복지센터
702-2226
정장영 (안토니오), 강연옥(에로니카)
010-2567-2956, 010-2550-2684
해운대구 양운로 115 (해운대문화회관 교차로)

임플란트, 심미보철, 교정치료
성모치과
원장. 송치원(라우렌시오)
633-8228, 634-8228
지하철 1호선 범일동역 1번 출구 50m

동래 **참사랑요양병원**
뇌졸중, 통증 재활 치료, 척추 손상
치매, 중풍, 간병 치료, 양·한방 협진
동래 : 553-0050 추홍수(야고보)
광안 : 751-1515 김명희(야베스)

동래로타리
독일보청기
교우특별할인
방(아브라함) 송(아가다)
555-5777
지하철수안역 7번 출구 앞(국민은행 옆)

미래고속관광
45인승/리무진 관광버스 22대
성지순례, 결혼식, 각종행사
안전하고 쾌적한 여행
대표. 우종환(리차드)
055-333-6300, 010-3720-0303

갑상선·당뇨·고혈압·골다공증
김용기내과의원
[충무동 구. 김동수 내과]
원장. 김용기(T. 아퀴나스)
전 부산의대 학장 외 내과전문의 8명
상담 및 예약 245-7100

박숙현
정신건강의학과의원
공황장애, 우울장애, 수면장애, 치매, 횡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숙현 (에스텔)
의학박사
611-3339
남천 지하철역 3번 출구, 대남빌딩 5층

백천피부과의원
(구) 괴정동 백천피부과
조광윤(안토니오), 김정민(아벳따)
758-1100 지하철 수영역 3번출구
기미·잡티·여드름·홍조·에스테틱

더고운 피부과 의원
피부질환, 기미, 색소, 레이저, 필러
보톡스, 리프팅, 여드름, 모공, 흉터
피부과 전문의 정세원 (마태오)
558-7575
은전창동 동래출몰러스(뫼핀) 우성빌딩 3층